

# 민주 남구·북구청장 본경선 진출자 확정... 공천 경쟁 치열

### 남구, 김병내·황경아 맞대결... '反 3선 연대' 싸움 구도 재편 북구, 김동찬·문상필·신수정·정다은·조호권 '적임자' 경쟁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북구청장 경선의 본선 진출자가 최종 확정되면서 선거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남구는 5파전에서 김병내 후보의 3선 도전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집 세력의 대결로 구도가 정립됐으며, 7명의 후보가 난립한 북구는 5명으로 후보가 압축되면서 '무주공산'을 이끌 적임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남 6·3 지방선거 광주 남구와 북구 기초단체장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예비경선은 지난 24일부터 25일 까지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병내·김용집·성현출·하상용·황경아 등 5명의 출마자가 맞붙은 남구청장 예비경선에서는 김병내·황경아 후보가 결선에 진출,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특히 5자 대결이었던 선거 구도는 3선에 도전에 나서는 김병내 후보와 '반(反) 3선 연대'의 싸움으로 재편됐다.

앞서 김용집·성현출·하상용·황경아 예비후보는 결선에 진출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을 이뤄 김 병장의 3선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결선에 진출한 황경아 후보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병장의 3선 도전을 욕심으로 규정한 뒤 "강력한 단



김병내



황경아



김동찬



문상필



신수정



정다은



조호권

일대오를 구축해 갑등과 분열의 정치를 배격하고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남구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현역 단체장의 불출마로 이른바 '무주공산'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북구는 김동찬·문상필·신수정·정다은·조호권 후보 등 5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민주당 북구청장 경선은 김대원·김동찬·문상필·신수정·오주섭·정다은·정달성·조호권 등 8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며 광주 기초단체장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이번 예비경선으로 김대원·정달성 후보가 낙마한 데다 경선 시작 전 오주섭 후보

의 불출마 선언으로 후보군이 좁혀짐에 따라 결선행을 확정 짓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가의 의견이다.

남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북구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해 1

위 후보자가 50%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최종 2인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중앙당 재심위원회를 거친 뒤 다음달 2일까지 본경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민주, 통합시장 심층토론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서 스타트

### 정책배심원, 패널 참여해 질문 방식 눈길 28일 순천대 29일 조선대서 연이어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을 위한 '권역별 심층 토론회'가 27일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28일은 순천대 초석홀에서, 29일은 조선대 서석홀에서 전남서부권과 동부권, 광주권을 연일 순회하며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배심원들이 패널로 참여해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하거나 사회가 특정한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처음 도입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이 이들 3곳에서 27~29일 사흘 동안 각각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0분씩 '정책배심원 심층토론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에 오른 후보자들은 기호 1번 김영록, 기호 2번 강기정, 기호 4번 주철현, 기호 5번 신정훈, 기호 6번 민형배 후보 5명이다.

이번 심층토론회에서 마련된 '후보 정책발표'와 개별 후보가 전체토론을 이끄는 '주도권토론' 프로그램은 예비경선 후보들이 참여했던 조별토론 때 방식과 같다.

다른 점은 우선 정책배심원단 가운데 추천을 통해 5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배심원의 공통질문에 후보자들이 각각 1분 내로 답을 하는 '정책배심원 질문'이 도입된다.

또 사회자가 추천으로 답변할 후보자들

먼저 정한 뒤, 질문을 원하는 배심원이 손을 들면 사회자가 손을 든 배심원 가운데 제1자로 질문자를 선정해 질문과 답변을 하는 '정책배심원단 즉문즉답' 토론회도 시행된다.

이때 배심원의 질문은 30초 내로,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은 1분 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즉문즉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서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각 후보자가 2분 내로 답변을 하는 '사회자 공통질문' 코너도 마련됐다.

토론 순서와 소요 시간은 △후보 정견 발표(후보당 2분) 총 10분 △정책배심원단 질문(후보당 1분 답변) 총 30분 △주도권 토론(후보자별 4분 주도권, 답변 30초 이상 보장) 총 20분 △사회자 공통질문(후보당 2분 답변) 총 10분 △정책배심원단 즉문즉답(후보당 1분 답변) 총 25분이다.

3개 권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이번 심층 토론회의 사회는 임세은(당 선임부대변

인), 서정성(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선관위 위원이 맡았다.

매회 토론을 1부(후보 정견발표, 정책배심원단 질문)와 2부(주도권 토론, 사회자 공통질문, 정책배심원단 즉문즉답)로 나누고, 1부가 끝난 뒤 5분 정도 휴식시간을 마련했다.

주최 측은 이 시간에 토론회장 무대를 주도권 토론용 테이블로 바꿔 설치할 예정이다.

권역별 정책배심원은 모두 30명이고, 이들은 추천이나 거수를 통해 사회자 지목으로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따라서 30명 정책배심원 모두 사전에 후보들에게 할 질문을 1개 이상 준비하지만, 토론을 마칠 때까지 질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후보자들은 이날 토론회의 각 테이블 앞면을 가리는 하단 현수막을 20자 이내로 준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 이정선 시교육감, 통합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40년 현장 경험...전남·광주 교육대전환 이끌 것"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6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선거'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전남·광주 교육 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의 교육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의 핵심 가치로 '국가균

형발전'과 '정부와의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전남·광주 교육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 모델"이라며 "정부 기초에 맞춰 교육통합을 성공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은 교육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교육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전남 동부권을 시작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구체적인 교육 정책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영광 에너지 중심도시로 만들겠다"

### 장세일 영광군수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일 영광군수(사진)가 6·3 지방선거 영광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나섰다.

장 예비후보는 26일 영광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영광을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도시로 만들고, 에너지가 군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 균형을 맡아 불안했던 행정 공백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섬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는 안정된 균형을 바탕으로 영광의 더 큰 도약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그간 추진 성과로 전 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과 전남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50만원 추가 지급 등을 언급하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된 경험과 실력으로 영광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고 군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도선관위는 26일 도선관위 1층 대회의실에서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전남지방우정청 등 10개 기관 선거사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열고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전남도선관위,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 도·도의회·교육청·경찰 등 10개 기관 협의체 가동

전남도선관위 26일 도선관위 1층 대회의실에서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전남지방우정청 등 10개 기관 선거사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업무협의 회를 열고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별 협조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안건은 선거관리 인력과 시설 지원, 사전투표와 분투표·개표소 안전관리, 선거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 투표용지 보관 및 수송 경비, 불법·탈법 선거운동 차단과 위반행위 수사 협조

등이다. 전남도선관위는 각 기관과 선거의 중요성과 현장 부담을 공유하며, 투·개표 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선거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국가적 사무인 데다, 지역 내 다수 선출직을 동시에 뽑는 구조로 인해 어느 선거보다 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관리를 누구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김영록, 서울 아파트 논란 정면 대응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분"... SNS 통해 입장 밝히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가 서울 아파트 보유 논란과 관련해 처분 방침을 공식 밝혔다.

김 후보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소재 주택으로, 공식가격 기준 약 18억원 수준이다.

김 후보는 "그동안 병환 중이던 장인, 장모를 모시기 위해 배우자가 서울에서 거주했지만 도민의 생각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도지사로 근무하는 동안 도정에 소홀한 적은 없었다"며 "서울 출장 후에도 곧바로 내려와 도민을 만나고 업무를 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만큼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전남 열린 토론회에서 신정훈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 "전남지사 재임 기간 가족이 서울에 거주하고 본인도 서울 주택을 유지한 점은 지역 발전의지와 배치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가족의 서울 거주가 병간호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문제가 이어지자 주택 처분과 지역 거주의사를 재차 밝히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직 공직자·교수 125인, 민형배 지지 선언

전남·광주지역 전직 공직자와 교수 125명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민형배 경선사무소 민심캠프는 26일 "전남·광주지역 전직 공직자와 교수 125인 지난 24일 광주 출리데이호텔 컨벤션홀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직 공직자와 교수단은

대표해 조영무 전 광주시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해 이인근 전 목포부시장, 이병택 전남대 공대학장, 정희남 전 광주교대 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AI 인공지능산업과 에너지산업을 바탕으로 산업 대전환과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제시한 민형배 예비후보가 더 크고 강한 전남광주특별시를 실현할 최선의 후보"라고 밝혔다. 이신하 기자 goback@